

도교육청, 유아교육 맞춤형 지원 강화

저소득층 우선입학 기회 제공
다문화 유아 통합교육 실시
통합유치원, 내년부터 장애
중도유아까지 교육받도록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전북도교육청은 모든 유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다문화·특수교육대상 유아 등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가

진 모든 유아의 교육과 성장의 권리를 보장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에 우선입학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입학대상자로는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우선배정하고, 법정저소득층 100%, 국가보훈대상 3%, 이외 다문화, 다자녀, 장애부모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의 유아는 50%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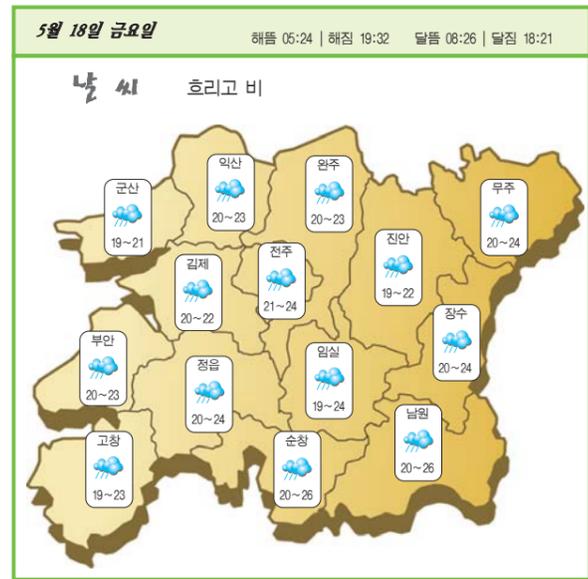
또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문화유치원을 6개원 운영하고 있

다. 다문화 유아들에게 언어발달 및 인지능력이 지연되지 않도록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또래유아와의 유대관계 형성 및 편견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교원에게는 언어교육, 문화이해교육, 다문화에 대한 존중 등의 다양한 교육 및 연수 등을 하고 있다.

아울러,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유아 단계부터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체계를 마련하여 공립유치원 19개원에서 22학급이 특수교육대상유아들에 대해서 유아학비, 치료비, 통학비, 보조인력 및 보조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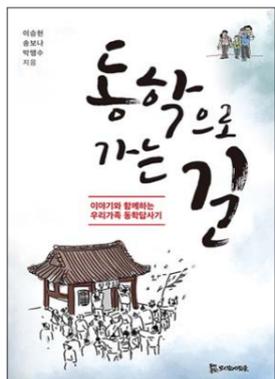
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장애·중도 유아 등이 원활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유치원이 개원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유아교육 보편화 및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단계에 대한 국가책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저소득·다문화·특수교육대상 유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유아교육이 희망사다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이야기와 함께하는 우리가족 동학답사기

원광대 박맹수 교수
'동학으로 가는 길'
이승현PD 등과 공동 출간



제 힘, 제 생각을 가지고 쓰며 제대로 된 삶과 제대로 된 사회, 사람이 존중받고 생명이 경시되지 않는 세계를 여는 일에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 땅에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본문188쪽)라고 제시하면서 모든 위대한 일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은 전국에 산재한 동학농민혁명 사적지를 동학 전문가인 박맹수 교수의 안내를 따라 현장 답사하면서 동학사상의 보편적 의미와 함께 동학사상에 기반을 둔 동학농민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야기 형식으로 생생하게 그려나가는 '다큐 스토리'로 2016년 전주 MBC와 춘천 MBC가 14부작으로 방송했던 라디오 드라마 '사람이 하늘이다'를 기반으로 한 취재 과정과 후일담까지 반영해 재구성했으며,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내용은 만화로도 재현하여 동학혁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100년 동안 우리가 써 나가야 할 한반도 새 역사의 뿌리를 튼튼하게 다지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월 최시형은 강원도 인제 감둔리 마을에서 수운 최재우 선생이 집필한 '동경대전'을 목판 위에 새기며 사람이 하늘이 되는 개혁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제 몸,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원불교학과 박맹수(원불교사상연구원장) 교수가 신간 '동학으로 가는 길 : 이야기와 함께하는 우리가족 동학답사기'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8)를 춘천 MBC 이승현 PD, 한국방송작가협회 송보나 씨와 공동 출간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생명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 실현하는 것이 동학임을 밝히고, 동학이 평등한 세상에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거였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남북한의 평화공존(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시대를 앞둔 지금, 우리 근현대사를 처음부터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앞으로

남원교육문화회관 인문특강 '지리산 인문기행'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남원교육문화회관(관장 이용희)은 남원 관내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8년 인문 특강 '지리산 인문기행'을 연다.

지리산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리산의 가치를 재발견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특강은 오는 오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열린다.

지리산의 인문, 자연,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특별 강연으로 구성하였다. 오는 25일 저녁 7시 '지리산의 가치 재발견' 강연을 시작으로 '길과 문화: 돌데길 인문학', '생생한 역사현장, 지리산', '문화으로 바라본 지리산', '지리산과 불교·사찰', '우리 문화 속 지리산'이라는 주제로 총 6주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 접수는 남원교육문화회관 3층 교육문화과 방문 및 전화접수(☎630-1233) 가능하다.

남원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지리산 전문가 강연을 통해 지리산(권)의 문화적·생태적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군산대-중 로동대학 석사과정 운영 협약

박병선 총장 특강도 진행

지난 11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박병선 총장이 자매대학인 중국 로동대학을 방문해 석사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특강을 하는 등 뜻깊은 국제교류활동을 펼쳤다.

박병선 총장을 비롯해 군산대학교 양현호 기획처장, 박시균 국제교류교육원장 등은 16일 중국 로동대학을 방문해 '석사과정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박병선 총장 일행과 로동대학 왕경 총장 및 양교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군산대학교와 로동대학은 1998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후, 2012년 군산대 교육대학원과 로동대 국제교류대학에 개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며 기존의 교류활동을 업그레이드했다. 양교는 이번에 석사과정 공동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더욱 활발한 유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공동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전공은 경제학, 무역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등으로 로동대학 학생들이 군산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후 1~2학기는 로동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3~4학기는 군산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공동운영된다.

박병선 총장은 협약 후 "한국의 디지털포렌식 교육현황"을 주제로 로동대 법학과 학부생 100여명에게 특강을 했다.

한편 박병선 총장 일행은 12일 북경에서 '유학생 동문인의 밤'에 참석한 후, 14일 동경시의 정호고등학교에서 학생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16일 로동대학을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했다. /기동취재반

가성비 좋은 태양전지 제조법 찾아

전북대 사디아 아민 연구교수, 홀전도체 물질 개발
세계적 학술지 '나노 에너지' 온라인판에 논문 게재

전북대학교 사디아 아민 연구교수(공대 화학공학부·지도교수 신형식)가 차세대 태양전지 제조법 개발에 성공한 것을 소개하는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 '나노 에너지(Nano Energy, impact factor=12.343)' 온라인 판에 'Stable perovskite solar cells using thiazolo [5,4-d]thiazole-core containing hole transporting material'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게재됐다.



사디아 아민 교수



신형식 교수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저명 학술지인 '나노 에너지(Nano Energy, impact factor=12.343)' 온라인 판에 'Stable perovskite solar cells using thiazolo [5,4-d]thiazole-core containing hole transporting material'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게재됐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발전 효율이 높으며, 제조 가격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높은 발전 효율의 주된 이유로 높은 광 흡수율, 큰 전하 확산계수, 우수한 전하이동 등에 기인한다. 그 중 현재 우수한 전하이동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홀전도체는 'Spiro-OMeTAD'이라는 물질인데, 이 소재는 다단계 합성 및 복잡한 정제과정에 수반되어 높은 비용이 소요됐다. 때문에 상업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치명적 단점을 갖고 있음에도 효율이 높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디아 교수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전도성 저분자 홀전도체 물질은 제조가 쉽고, 저비용이면서도 기존 'Spiro-OMeTAD' 소재와 비슷한 효율(16.4%)을 얻었다.

특히 기존 물질의 단점으로 지적된 전극의 안정성까지 개선하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다. 이는 저분자 물질합성에서 furan 스페이서 작용기를 첨부하여 흡이동도를 높이고 최고 점유 분자궤도함수(HOMO)와 최저 비점유 분자궤도함수(LUMO) 조절로 띠틈 간격을 변경한 새로운 홀전도체 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제1저자로 연구를 주도한 사디아 교수는 최근 5년간 39편의 국제논문과 7권의 국제저술을 하는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기본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